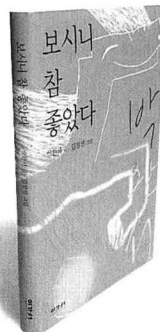


《보시니 참 좋았다》 글 쓰고 그림 그린 작가 박완서, 화가 김점선

다른 듯 닮았다, 온화한 열정과 분방한 장난기



《보시니 참 좋았다》

박완서 글 · 김점선 그림 | 이가서 | 168쪽 | 값 9,300원

◎ 영원한 현역 작가 박완서와 자유롭고 파격적인 화풍의 화가 김점선은 매우 다르다. 작가 박완서가 온화한 열정의 소유자라면 화가 김점선은 분방함과 장난기로 무장된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 그러나 두 작가는 여러 지점에서 흥미로운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구리시 아치울 마을의 박완서 집터는 예전 김점선의 땅이었다. 그 땅에 박완서는 집을 지었고, 김점선은 아차산 남쪽으로 이사했다. 그러니까 작가 박완서는 아차산의 북쪽에서 화가 김점선은 아차산의 남쪽에서 여전히 산을 공유하고 있다. 두 작가가 공동작업으로 펴낸 《보시니 참 좋았다》 역시 그렇다. 삶의 성찰에서 건져 올린 여덟 편의 이야기는 삶의 진실과 정도(正道)를 말하면서도 사금파리처럼 빛나는 지혜와 우수로 읽는 이를 즐겁게 한다. 반면 디지털작업으로 완성했다는 화가 김점선 씨의 그림들은 비구상과 구상을 넘나들면서 케를 같이 하며 화가와 소설가의 뚜렷한 주조음을 낸다. 아름다운 어울림이다. 2004년 3월 4일, 구리의 아치울에서는 두 사람이 어울려 탄생된 특별한 화음이 들려왔다. 《보시니 참 좋았다》를 사이에 놓고 작가 박완서와 김점선이 나눴던 색다른 정담을 공개한다.





HOA 점선 씨를 처음 본 건 1984년이었을 겁니다. 이이화 선생님 밑에서 한문공부를 하다가 만났죠. 저는 그 전부터 선생님 댁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점선 씨가 1984년 무렵에 한문공부를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마치 야생마를 보는 것 같았지요.(웃음) 점선 씨는 그때도 말투가 거침없었어요. 요즘에는 돌려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습니까. 우리는 늘 저 사람의 저의底意가 뭔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점선 씨 말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저는 점선 씨의 그런 면이 마음에 들었어요. 점선 씨처럼 거침없이 다 말하면 사람들이 멀리하기 마련인데 저는 본래 남들이 맘에 안 들어 할 것 같은 사람을 좋아하거든요.(웃음)

TKA 저는 그때 선생님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이이화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걸 뭐든지 더듬더듬 읽는, 정말 멍청한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박완서 선생님은 그 어려운 한자를 술술 다 읽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어찌나 부러웠는지요. 참! 이제 보니 선생님과 저는 책 이전에 클래스메이트classmate로 처음 만났네요.(웃음) 클래스메이트란 표현을 쓰니 아주 품이 납니다.(웃음) 물론 선생님 성함은 그 이전부터 글을 통해 알고 있었지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정말 건방졌거든요. 국내 작가의 글은 거의 안 읽었어요. 도스토예프스키나 르 클레지오 정도가 돼야 작가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홍익대 다니던 친구가 “이 여자는 한국 여성소설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며 우리나라 여류 작가를 추천하더군요. 그때 읽은 선생님 작품이 《나목》이었어요. 생각해 보니 제가 제일 처음으로 받아들인 한국 작가가 박완서 선생님이네요.

HOA 점선 씨는 그때부터 뭘 보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머리에 깃털만 꽂으면 영락없이 인디언 추장처럼 보일 여자였지요. 제가 점선 씨 책에 발문을 쓰면서도 언급했지만 점선 씨는 누군가 길바닥에 담배꽂초만 버려도 거위처럼 껍뻑거리면서 날뛰는 사람입니다. 전 여태껏 점선 씨처럼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본래 전 누구 길들인다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점선 씨의 야생마 같은 기질은 길들이고 싶어도 길들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TKA 아닙니다.(웃음) 책을 통해서만 선생님을 만났다가 이이화 선생님 댁에서 처음 뵈었을 때 내가 감히…하는 생각에 겁이 났다니까요. 사실 얼굴도 못들었어요. 그저 무섭기만 했지요. 전 본래 남 눈치 안 보고 생각한 대로 말하거든요. 무서운 것도 없고

요. 그래서 당시에 이이화 선생님께 꾸중을 많이 들었는데 박완서 선생님께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선생님이 절 길들이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생님이 제게 남다른 교훈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속으로는 어떤 폭풍을 만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늘 평상심을 유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집어던지고 싶을 때 이것저것 다 집어던지면서 제 기분대로 살거든요. 사람들 생각도 안하고 흥분에 겨워 말을 건네길 잘하지요. 그런데 선생님은 달랐어요. 늘 한결같이 온화하고 누구에게나 예의를 지켜주셨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점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 본래 성질을 완전히 죽이지는 못했지만…(웃음)

HOA 그렇지만 점선 씨 속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철없이 날뛰는 것 같아도 아주 작고 하찮은 것에 대해 애정을 쏟는 사람이지요. 꽃이며 동물, 나무 등을 무척 좋아하고 그 순수함이 그림에도 묻어납니다. 점선 씨 그림을 보고 제 손자 손녀들이 어떤 아이가 그랬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점선 씨 그림의 특징은 어른이 그런 그림인데도 동심童心이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곧 꾸밈이 없다는 말입니다. 억지로 만든 이미지가 아니라 정직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천진한 그림이라는 걸 알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보시니 참 좋았다》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말이지요. 독자들에게 읽는 즐거움도 주고 그림을 보는 즐거움도 주고 싶었거든요. 너무 사실적인 그림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려운 그림도 아니라서 누구나 다 향유할 수 있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작가 박완서 얘기대로 화가 김점선은 글을 읽으며 떠올린 이미지들을 자신만의 독특한 이미지로 쏟아냈다. 강렬하고 선명한 색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으며 단순한 선과 면은 글을 설명하거나 현학적으로 꾸미는 데 가담하지 않는다. 그저 글 옆에서 나름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뽐어낼 뿐이다. 재미있게도 표제작인 〈보시니 참 좋았다〉(할아버지가 어릴 적 그려놓은 성당벽화가 하나의 훌륭한 작품으로 인정받기까지 그 능력을 알아보고 키워준 시선이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지켜봐준 사람들의 애정이 있었다는 내용)에 나오는 사람들의 애정어린 시선은 화가 김점선을 ‘금치산자’ 취급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그의 개성을 지금껏 애정으로 바라본 작가 박완서의 시선을 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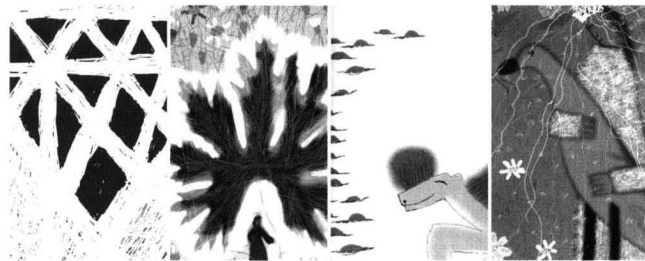
TKA 선생님께서 저에게 죽기 전에 함께 작업한 책 한 권 내



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성들여서 기념비적인 책으로 내자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선생님만큼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기만 하지요.

HOA 사실 제 말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웃음) '최후의 기념비'라는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제 경우는 소설가이기 때문에 글을 쓸 때도 아무렇게나 대충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편하게 써서 잡지에 기고했던 원고도 언제 책으로 나올지 모른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책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독자들 곁에 남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겨요. 그렇다고 점선 씨가 대충 준비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점선 씨는 책 작업이 아니라 일정 기간 전시회를 자주 하는 입장이니까 저랑은 다르다고 생각했지요. 책은 전시회처럼 한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독자들에게 영원히 남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를 점선 씨도 알았으면 했어요. 또 자유분방한 점선 씨 성질을 아니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었지요. (웃음)

KA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듣고 선생님 글을 다시 읽었어요. 글을 읽고 주제에 합당한 그림을 다시 그려봤지요. 이번 책이 저한테 소중한 이유는 저만의 작업방식이 가장 잘 드러났다는 것인데요. 오십견 때문에 팔을 쓸 수가 없어서 컴퓨터로 그림을 그렸거든요. 기본 그림을 유화로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컴퓨터로 작업을 한 겁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합된 셈이지요. 저는 본래 제가 갖고 있던 이미지들과 제가 새로 그린 그림들을 다 출판사 측에 보냈어요. 여기 나온 그림이 20점 가량 되는데 제가 출판사 측에 보낸 그림은 200점이 넘어요. 대부분의 화가들은 자기 그림을 훼손하는 걸 싫어하잖습니까. 근데 저는 밤새워서 제 그림을 전송하면서 내 그림을 마음대로 오려 보라고 편집의 자유를 줬어요. 절대 그림을 송배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작가에 대한 존경심도 갖지 말라는 사인이었죠. 책에 나오는 그림은 전시목록이 아니거든요. 편집자도 자기가 필요한 이미지만 편집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봐요. 편집 하나 없이 온전한 그림 그대로 책 속에 걸려있기를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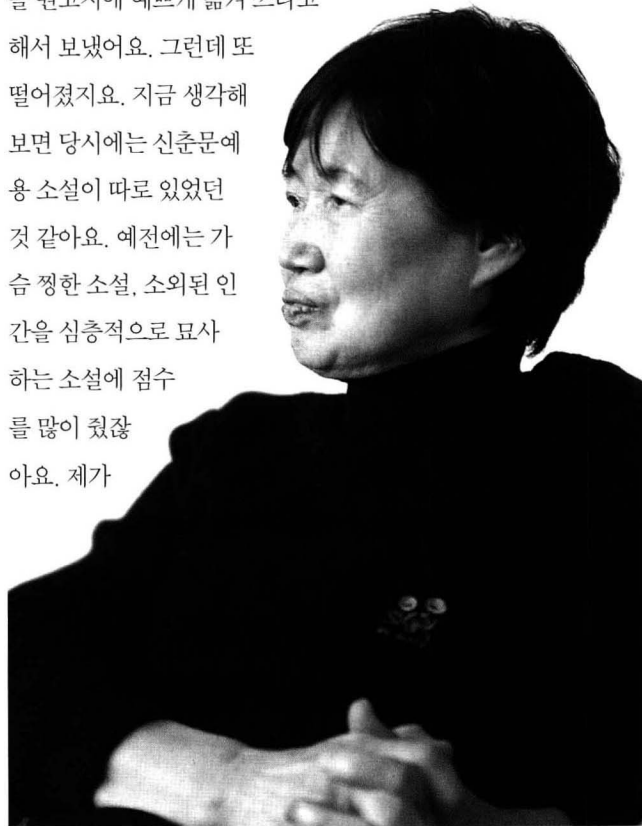


하는 작가들은 책을 전시장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HOA 점선 씨에게도 그렇지만 《보시니 참 좋았다》는 저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1970년대 어둠던 유신시절에 썼던 글과 최근에 썼던 글이 함께 담겨 있는 책이거든요. 당시에 어머니들을 독자로 생각해 놓고 썼던 글인데 다시 읽어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부한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에게 들려줘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묶은 겁니다. 특히 최초의 동화집에 실렸던 〈다이아몬드〉가 실린 것이 저에겐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 최근작 〈보시니 참 좋았다〉와 예전 작품인 〈쟁이들만 사는 동네〉가 그렇지요. 제가 화가들과 인연이 많고 화가들을 좋아하긴 하나 봐요. 저기 거실에 있는 점선 씨 그림도 그렇고, 그림 감상을 좋아해서 나도 한번 배워볼까 생각해 보긴 했지만 지금껏 특별히 그려본 적은 없습니다.

KA 저는 글 써보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는데요. (웃음) 신춘문에 응모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떨어졌어요. 자꾸 떨어지니까 내가 글씨를 못 써서 떨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당장 글씨를 예쁘게 잘 쓰는 친구에게 제 글을 원고지에 예쁘게 옮겨 쓰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또 떨어졌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신춘문에 용 소설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슴 정한 소설, 소외된 인간을 심층적으로 묘사하는 소설에 점수를 많이 줬잖아요. 제가





쓴 소설들은 지금 제 모습처럼 제멋대로에다가 마냥 재밌고 코믹한 내용이었거든요.

HOA 신춘문에 응모는 절 만나기 전 일이었던 것 같네요. 전 처음 듣는 얘인데... 요즘에 응모했다면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네요.(웃음) 요즘에는 그런 소설들을 무척 좋아하고 그런 소설들이 인정받으니까요.

TKA 참!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번 작업 하면서도 그랬지만 저는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보내거든요. 이메일에 저장된 주소록으로 보내면 다른 사람들은 "와 짱이다!"라고 말해주는데 박완서 선생님만 한 번도 말씀을 안해주셨어요.(웃음) 답장도 안해주시고.

HOA 저도 컴퓨터를 자주 사용합니다. 아까 점심 먹으면서 싱아를 자꾸만 물어보던데 싱아를 그릴 수 있느냐는 얘기들을 나눴었지요. 점선 씨를 만나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어서 좋아요. 떠드는 것이죠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때론 경계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하잖아요. 저에겐 점선 씨가 그런 상대라고 볼 수 있어요.

TKA 끝까지 그림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시네요.(웃음) 저는 오십전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컴퓨터 작업을 하게 됐지만 오히려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컴퓨터 그림에 대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 추종자가 많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원시시대에는 누구나 그림을 그리고 향유할 수 있었지만 중세부터는 그림이 특정 계층의 문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디지털은 누구나 그림을 똑같이 감상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게 해줘요. 100장, 1억 장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하느님 앞에 누구나 평등한 것처럼 누구나 똑같이 내 그림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어요. 또 작업 방식에 있어서도 물감 짜내는 소모전이 없어서 좋고요. 저장하고 지우고 다시 실행하면서 포토샵 프로그램만 배우면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지요. 오늘도 글을 쓰면서 계획을 하나 세웠는데 저는 올해 개천절을 기해 상공에서 제 그림을 뿌리는 이벤트를 기획할 겁니다. 빈 라덴도, 흑인도, 돌고래도 누구나 평등하게 제 그림을 갖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뼈라처럼 그림을 상공에서 뿌린다니 얼마나 멋집니까.(웃음)

HOA 저도 본래 이 책에 담긴 글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썼지만 어른, 어린이 할 것 없이 누구나 편하게 읽고 좋은 교훈을 얻

어갔으면 해요. 점선 씨는 저렇게 판타지 같은 얘기만 하는데 저와 둘이 있을 때는 더해요. 사실 저도 속마음은 점선 씨랑 똑같거든요. 점선 씨가 나의 다른면이기도 하지요. 나도 저렇게 자유분방하게 살았으면 싶을 때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화가 김점선은 이번 책을 작업하면서 어울리지도 않는 '인고忍受'의 시간을 보냈다. 출판사와 의견조율이 안돼 심사가 뒤틀렸을 때마다 박완서 선생은 "점선이 너 화났냐?"며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때마다 화가 김점선은 "이 세상 누구와 싸워도 좋지만 박완서 선생님께는 화를 내도 안 되고 싸우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남편의 유언을 떠올리며 여러 번 화를 눌러삼켰다. 이렇듯 《보시니 참 좋았다》는 김씨의 '덤벙대며 흥분하는' 다혈질적인 면을 어느 정도 제어해 준 특별한 책이다. 물론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른', 작가 박완서 덕이다.

TKA 선생님은 완고한 할아버지가 계신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저는 덜 완고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막 날뛰고 다니나 봐요. 그런데 우린 잘 통해요. 저는 판타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좋아하는데 선생님은 상상을 발휘하시는 폭이 넓은 분이니까 제가 마음 놓고 떠드는 그 판타지 세계를 다 수용해 주시지요. 이번 책에 나온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세계를 선생님께서 먼저 이해하고 풀어주신 거나 다름없어요.

소설가 박완서와 화가 김점선. 이제 보니 두 사람은 많이 닮았다.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달라는 말에 "계획은 무슨 계획이 있어요. 오로지 그림을 그릴 거라는 생각 외에는 안합니다. 그냥 늘 그리고 있는 거지요"라고 답하는 화가 김점선의 대답은 "계속해서 글을 쓰고 싶을 뿐이지 특별히 뭘 준비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며 살진 않습니다"라는 작가 박완서의 대답과 닮았다. 곧 아차산 장자못으로 산책 나갈 생각에 설레는 두 사람의 어린아이 같은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테다. 그 전에 두 사람은 《보시니 참 좋았다》를 펼쳐 놓고 두런두런 이야기 삼매경에 빠진다.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원로 소설가와 화단의 야생마 같은 중견 화가가 서로 닮기까지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김**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